

# 문화·역사·신앙이 깃든 '우리마을 숲'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이상훈의 마을숲 이야기

이상훈 지음

영광 법성진 숲쟁이(법성면 진내리·법성리)는 1514년 조성됐다. 법성진을 조성할 때로 추정되며 인의산 능선을 따라 약 700m에 이르는 숲이다.

지난 2007년 국가 명승 22호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2006년 한국의 10대 아름다운 숲에 지정되기도 했다. 500년 가까운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지닌 남도의 대표 숲이다.

숲쟁이란 용어는 숲쟁이의 사투리이다. 남도에서 '쟁이'는 '재', 다시 말해 성(城)을 뜻하는 어휘로도 쓰였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숲으로 된 성'이라 하겠다.

일설에 따르면 법성진 숲쟁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풍수설과 연관이 있는데 인의산 와우혈에 관한 내용이다.

숲쟁이는 소가 누워 있는 곳을 중심으로 흙이 쌓



여 숲이 생겼다. 그러나 흑여 소가 잠에서 깨어 숲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잔치를 벌여 소를 위무하고 갑자기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옛 조상들은 이처럼 산을 유기체로 보았다. 누구든지 숲쟁이를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숲쟁이 핵심 공간은 부용교 양쪽에 위치한 숲인데 이곳에서 단오제가 열린다.

'우리마을'과 '전통문화의 이해'의 저자인 이상훈 진안문화원 부원장이 최근 발간한 '이상훈의 마을숲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용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숲쟁이는 낮은 고개마루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 법성포를 아늑하고 살 만한 땅으로 만듭니다. 풍수적으로 법성포를 명당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영광 법성진 숲쟁이인 것입니다."

이번 책에는 저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난 마을숲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보며 우리와 함께 했던 숲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온 귀중한 문화자산이다.

저자는 먼저 삶의 터전인 진안과 장수를 비롯해

진안을 비롯한 저자의 전국의 숲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위주로 전개된다. 진안의 아름다운 마을숲 1번지 하초 마을숲은 불완전한 땅을 완전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곳으로 본다.

이곳은 생명의 숲에서 매년 실시하는 '2005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조선 중엽 도선국사는 마을 뒷산을 보고 마치 말이 풀을 뜯는 모습과 유사하다 하여 상초(上草), 중초(中草), 하초(下草)라 이름 지었다고 전해온다.

마을숲은 외부로부터 마을을 차단하고 있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기가 흩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이의 삶이 우선이지 낯선 이들의 구경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실의 방동 마을숲은 비바람을 막아내며 마을을 품어왔다. 관촌면 방수리 방동마을숲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이곳은 200~300년 전 황장군 부부가 조성한 제방림이다. 마을 앞에는 '숲밀애'라 불리는 농경지가 있었는데 근처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부부가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다. 황 장군 부부는 고을의 높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정이다.

책에는 금오도 해송숲에 관한 부분도 기술돼 있다. 직포마을의 우람한 해송은 단산나무와 같은 느낌을 준다. 30여 그루의 해송이 방풍림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마을 해송숲은 부안 모항과 유사한 해변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이밖에 책에는 덕유산 폭수에 자리잡은 해남 녹



영광의 법성진 숲쟁이는 500년 가까운 전통과 역사, 문화를 지닌 남도의 대표 숲이다. <사진 영광군 제공>

우당의 해송숲을 비롯해 해남 서림공원에 자리한 서림숲 섬진강 백사장에 펼쳐진 하동 송림, 마을 공동체 정신을 간직한 고성 장상 마을숲, 홍수로 인한

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함양 도천의 마을숲 등이 소개돼 있다. <푸른길·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바게트 소년병

오한기 지음

"분명한 건, 그의 소설은 용감하면서도 매혹적이라는 것이다. 비루한 현실에 존재하는 무수한 사건들과 우연들을 엮어 기어 이 또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기를 갈망하는 실험자, 오한기. 나는 '바게트 소년병'이 좋다. 무엇보다도 재미있다. 이쯤이면 이 작품에 다음과 같은 수식어 하나쯤 붙여도 무방할 것 같다. 소설계의 '꼬꼬무', '바게트 소년병'!"

영화 감독 김초희의 추천사를 읽으면서 이 작품집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다. 한마디로 독창적인 상상력과 과감하고 신선한 서사 전개가 특징적이다. 오한기 작가의 '바게트 소년병'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2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에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던 오 작가는 제7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소설집 '의인법', 장편소설 '홍학이 된 사나이', '나는 자급자족한다', '가정법' 등을 펴냈다.

이번 소설집에는 지난 7년 동안 발표해온 단편 가운데 7편을 선별해 엮었다.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은 표제작 '바게트 소년병'이다. 소설가 이장욱은 이 작품에 대해 "언어로 건축을 하지 않고, 직물을 짜지 않고, 그냥 연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이다.

작품은 우연히 자신의 조상이 시인 오상순임을 알게 된 뒤 갑자기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수진이 공사중인 동네 수영장에 갔다가 어느 소년을 마주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바게트를 총으로 겨누고 있는 한 소년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러 떠난 누나를 기다리며 수영장을 지키고 있다.

수진과 소년과의 기묘한 만남을 모티브로 소설은 전개된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날 수영장에서 총에 맞아 죽은 남성의 시체가 발견된다. <문학동네·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회복력 시대

제러미 리프킨 지음, 안진환 옮김

'회복력'이라는 용어가 있다. 다시 뛰어오른다는 의미의 라틴어 리살리오에서 유래했다. 원래는 생태학 개념에서 혼란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생태계 역량을 말하는 것을 일컫는다. 오늘날에는 특정한 분야에만 해당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그 개념이 확장되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을 넘어 다른 시스템으로의 이행까지를 아우른다.

현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경제사회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그동안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미래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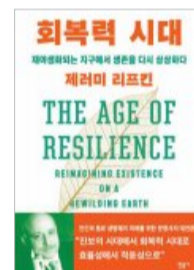
리프킨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문명사의 대전환 국면에서 회복력을 주장한다. 그가 펴낸 '회복력 시대'는 이전의 진보의 시대가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부상하는 회복력 시대는 적응성에 발을 맞추었다고 강조한다.

책은 8년의 집필 끝에 완성됐으며 사회와 경제는 물론 거버넌스 혁신, 기후 변화 등의 연구를 집대성했다.

그는 효율성에서 적응성으로의 이행은 생산성에서 재생성, 성장에서 변형,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판매자-구매자 시장에서 공급자-사용자 네트워크로 선행 프로세스에서 인공두뇌 프로세스로, 수직 통합형 규모의 경제에서 수평 통합형 규모의 경제로 바뀐다.

저자는 "진보의 시대에 공간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과 같은 말이 되었고 거버넌스는 자연을 재산으로 관리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회복력 시대에 공간은 지구의 진화 과정과 패턴, 흐름을 설정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행성의 여러 권역으로 구성된다"고 부연한다. <민음사·2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치명적 사랑을 못 한 열등감

문정희 지음

"나에게는 온 몸으로 뛰어든 온 생애를 불같이 태우는 그런 치명적인 사랑을 못 한 열등감이 있다"

시 앞에서 한없이 진술해지고 한없이 나약해지는 문정희 시인의 고백이 담긴 에세이 '치명적 사랑을 못 한 열등감'이 2022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책은 2016년 문예중앙(현 중앙북스)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된 바 있지만 시간으로 출판되는 만큼 책의 구성과 흐름을 바꿨다. 여러 에세이와 시가 묶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모양으로, 에세이는 시처럼, 시는 에세이처럼 자연스럽게 매치돼 독자들은 고른 호흡으로 읽어들 수 있다.

찰나의 순간에도 시인으로 살아가는 저자의 떠돌던 젊은 날의 방황과 내밀한 시 세계를 책 속에서 만나볼 수 있다.

책은 3부에 걸쳐 갖은 영감을 노래한다. 1부는 세계적인 명작을 탄생시킨 예술계의 거장들의 발자취를 좇는다. 2부에서는 한국 문단의 주축이 된 스승들에게서 받은 영감에 대해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빼어난 여성 시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에 내포된 의미를 되짚는다.

책 속에서 스스로를 "끝없이 시를 쓰는 하이퍼그래피아(끝없이 글을 쓰는 정신 질환)"라고 표현하는 저자 문정희 시인은 보성 출신으로 1969년 등단 후 지금까지 50년 넘는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 여고생 최초로 발간한 시집 '꽃숨'부터, 세계 10개 언어로 출판된 14권의 번역 시집을 펴냈으며 현대문학상, 정치운동문학상, 목월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10월에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임명됐다. <문학사상·1만4000원>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소프트웨어 (SW)

빅데이터인공지능 (AI)

미디어컨텐츠 (VR)

디지털리터러시 (오피스활용)

062)380-0606, 06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